

## 어머니의 애착과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sup>+</sup>

이 숙\*<sup>†</sup> · 우희정\*\* · 김미란\*\*\*

\*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가정과학연구소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전남과학대학 가정보육학과

### The Effects of Maternal Attachment and Child-Rearing Behavior on Adolescent's Self-esteem

Lee Sook\*<sup>†</sup> · Woo Hee Jung\*\* · Kim Mi Ran\*\*\*

\* Dept. of Home Management, Home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

\*\* Division of Social Welfare, Kwangju Univ.

\*\*\* Dept. of Home Care, College of Chonnam Scienc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ex of adolescent and SES of the family, maternal attachment and child-rearing behavior on adolescent's self-esteem. The subjects were 234 pairs of adolescents attending at junior-middle schools and their mothers in Kwangju. The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s on maternal attachment and child-rearing behavior and adolescent's self-estee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effects of maternal attachment types on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did not found significantly.
2. Maternal 'love' and 'authoritarian' child-rearing behavior, sex of adolescent were found significantly influential variables on adolescent's self-esteem.
3. Due to sex and levels of self-esteem, the influences of variables were found differently.

KEY WORD : self-esteem, maternal attachment,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이 연구는 1998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전남대학교 가정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sup>†</sup>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

300 Yongbong-dong, Puk-gu, K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1323, Fax : 062-530-1329

E-mail : sookleej@hanmail.net

## I. 문제의 제기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적응능력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다. 자신의 신체적 특징과 기술, 자기가치에 대한 견해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갖는 견해까지도 모두 반영하여 자아개념을 수립하고 확장하는 것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높은 교육적 기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면서, 또래와 성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심리적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나 세계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기가 매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자아개념은 인지적 측면에서 자신을 독특하고 타인과 구별되는 분리된 실체라고 지각하는 반면에, 자아존중감은 감정적 측면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느낌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 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 판단, 태도, 감정 및 기대 등을 포함하며 (Coopersmith, 1967), 자기 자신과 주변의 객관적인 환경 요소들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통해 유아기에 그 바탕이 형성되어 청소년기를 거쳐 인생전반을 통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발달하게 된다(Dusek & Flaherty, 1981; McCarty & Houge, 1982).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우울, 불안 및 비행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곽금주, 김근영, 1996, 1997; 심웅철, 1992; 심희옥, 1997; Edwards, 1996; Owens, 1994) 밝혀지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심리적 부적응 및 폭력 등에 쉽게 빠져든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하연, 오경자와 윤진, 1991; Edwards, 1996). 이렇듯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반영해주는 주요 특성으로서 청소년들의 적응을 평가하는 매우 유용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관련변인들에 대한 탐색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기가 가정, 특히 어머니보다는 또래 친구들이나 학교, 또는 매스컴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어머니와의 관계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겠다.

자아존중감에 관한 최근의 학문적 동향을 보면,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는 청소년의 자존감은 그들의 내면적 가치에 대한 부모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이며, 이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평생발달적 관점에서는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나 주변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등이 대부분 어린 시절에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그 기초가 형성되고 중요한 타인, 즉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하여 발달해 간다고 제시하고 있다. Bowlby는 생의 초기인 영아기에 애착대상에 대해 내적 수행모델을 형성하게 되며, 이 모델은 일생동안 거의 변화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애착은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이 다시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enoit & Parker, 1994; Strand & Wahler, 1991). 즉, 어머니가 형성한 애착유형은 부부를 포함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며, 이것은 다시 결혼 갈등을 초래하거나 자녀를 부적절하게 양육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Crowell & Feldman, 1988). 전현진·박성연(1999)은 어머니의 아동기경험이 자녀에 대한 온정적, 거부·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고, 박성연, 임희수(2000)는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 양육행동과 통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16~62개월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Eiden, Teti와 Corns(1995)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안정애착이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hn, Cowan, Cowan과 Pearson(1992), Crowell과 Feldman(1988)의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이 불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어머니들보다 더 애정적이고 더 지지적이었다고 하였다. 강차연·장연집(1999)은 어머니의 애착유형을 안정-자율형, 불안정-거부형, 불안정-몰입형, 불안정-미해결의 4유형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른 양육행동에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문제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을 다시 정상집단과 임상집단으로 분류해서 분석한 결과, 집단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서 임상집단에서는 어머니의 애착유형이 아동의 문제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체로 어머니의 수용 및 온정이나 애정, 지지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김문혜, 강문희, 1999; 도현심, 최미경, 1998; 박영애, 1995; 조성연, 1997; Richards, Gitelson, Petersen & Hurtig, 1991)되고 있으며, 부모의 거부나 권위적인 양육행동 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박영애, 1995; 오순환, 1991; Litovsky & Dusek, 1985)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부모의 통제에 대한 결과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어머니의 통제(김경연, 1993)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준다거나, 거부/제재(도현심, 최미경, 1998)와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거부/제재(박영애, 1995)나 허용/방임(도현심, 최미경, 1998), 과보호(이은경, 1995)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 등으로 나타나서 불일치하는 것이다. 어주경·정문자(1999)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킨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자녀의 성에 따라 각 양육행동 차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Felson & Zielinsky, 1989; Loeb, Horst & Horton, 1980)도 제기되고 있다. 즉 자율성의 격려가 여아에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Kawash, 1985)과 남아에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Gecas, 1986)이 서로 대립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애정,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딸의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아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운현선, 1984)도 보고되어 있으므로 성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기부터 청소년기 이후까지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중 적응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어머니의 애착유형은 자신의 양육행동을 결정짓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분석하여 각 집단내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애착유형 등 독립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

한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에 관한 결과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 중학생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를 조사한 임제련의 연구(1987), 초등학교 3,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강민주와 전경숙(1995)의 연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하현숙(1981)의 연구들은 모두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있는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연구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초등학교 3,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진화와 전경숙(1995)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역량과 운동적 역량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고 보고하였고,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희화·김경연(199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적 자아, 교사관련자아,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자아, 성격적 자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관련자아와 학업 및 전반적 자아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는 데, Hill(1990)은 가정의 SES가 낮은 경우 다양한 문화적 조건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 신체적, 정서적 쇠퇴를 가져옴으로써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정의 SES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대체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김경연, 1993; 손화희, 윤종희, 1990; 조성연, 1997),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손화희, 윤종희, 1990; 오순환, 1991; 조성연, 1997; Trusty, Peck & Mathews, 1994)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라 양육행동이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하며, 청소년의 성과 가정의 SES, 어머니의 애착요인, 양육행동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청소년의 성에 따라 이들 변인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라 양육행동은 차이가 나는가?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성, 가정의 SES,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요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성, 가정의 SES,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요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4. 청소년의 성에 따른 가정의 SES,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요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 상담 프로그램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으며,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거나 이로 인해 문제행동이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2개구에 소재한 남, 여 중학교에 재학하는 2학년 청소년자녀-어머니 350쌍을 임의로 표집하였고,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의 경우를 제외한 234쌍의 자료만이 실제분석에서 이용되었다. 남자 청소년-어머니쌍은 128쌍이었고 여자청소년-어머니쌍은 106쌍이었다. 부의 교육수준은 고졸(44%), 대졸(38.5%) 순이었고, 모의 교육수준은 고졸(62%), 중졸(20.5%) 순으로 나타났다. 부의 직업은 자영업(23.9%), 관리직(23.9%), 사무직, 기술직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계 월평균 수입은 101만원~200만원(47.4%), 201~300만원(25.6%), 301만원 이상(15%), 100만원 이하(12%)의 순이었다.

###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는 청소년용과 어머니용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는 데, 어머니의 성인기의 애착과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ollins와 Read(1990)의 도구를 기초로 작성한 최정미(1999)의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의존, 불안, 친밀 등의 3요인(1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

는 의존(6문항)이 .66, 불안(4문항)이 .68, 친밀(4문항)이 .5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박성연과 이숙(1990)이 개발한 척도중에서 애정(7문항), 권위주의적(6문항), 과보호(5문항)의 3요인(18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애정 .86, 권위주의 .59, 과보호 .57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송인섭의 자아특성검사중 일반 자아검사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지며, 낮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84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방법

검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한 예비조사는 1999년 9월 12일~14일 사이에 50명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수정된 검사도구를 사용한 본 조사를 10월 24일~31일 사이에 중학교 2학년 청소년 350명과 그 어머니들에게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서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연구 문제의 분석을 위해서 일원변량분석과 중다회귀분석, 군집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른 양육행동

어머니의 애착유형을 추출하기 위하여 3가지 애착요인의 점수(의존, 불안, 친밀)를 이용하여 비계층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그 결과 4개의 군집수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점수로 군집의 성격을 알아본 결과 ① 안정-의존 애착(33.3%) ② 안정애착(32.5%) ③ 불안정-양가 애착(10.3%) ④ 불안정-회피 애착유형(23.9%)으로 명명하였다. 군집1은 친밀, 의존 점수가 높고 불안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자신의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

으려는 성향이 높으면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감과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로서 안정-의존 애착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는 친밀점수가 평균보다 약간 높으면서 의존과 불안점수가 낮게 나타난 경우로서, 독립적이면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유형으로 보아서 안정 애착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은 의존과 친밀점수가 평균보다 높으면서 불안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서, 불안-양가 애착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4는 의존과 친밀이 평균보다 낮으면서 불안이 높게 나타난 경우로서 불안정-회피 애착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애착유형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하였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

##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성, 가정의 SES,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의 영향력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해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회귀분석에 이용된 변인은 청소년의 성, 가정의 SES, 어머니의 3가지 양육행동과 3가지 애착요인점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검증, 잔차의 정규분포검증, 오차항의 분산 동질성 검증의 세단계 절차를 거쳤다.

전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아동의 성,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유의하게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고 이에 대한 설명력은 20%였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권위주의적 양육행

〈표 1〉 애착요인 군집별 각 항목의 평균과 차이검증(n=234)

애착요인	전체 평균	군집1(n=78)		군집2(n=76)		군집3(n=24)		군집4(n=56)		F값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평균	Duncan	
의존	18.09	21.17	A	14.16	C	20.83	A	17.98	B	109.45***
불안	7.76	6.69	C	6.13	C	12.75	A	9.34	B	96.99***
친밀	14.48	16	A	14.89	B	14.88	B	11.63	C	47.76***

\* p<.05 \*\*p<.01 \*\*\*p<.001

〈표 2〉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른 양육행동(n=234)

애착 유형	양육행동	애 정		권위 주의		과 보 호	
		M	SD	M	SD	M	SD
안정-의존 애착 (n=78)		25.46	5.17	16.35	3.79	12.72	3.47
안정애착 (n=76)		25.58	5.44	16.14	3.67	11.72	3.34
불안정-양가 애착 (n=24)		24.50	5.56	17.42	3.72	13.46	3.40
불안정-회피 애착 (n=56)		25.45	5.01	16.14	3.67	11.72	3.34
F		0.27		1.51		2.29	

동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의 SES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3.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성, 가정의 SES,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요인의 영향력

자아존중감의 상, 중, 하 세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의 평균(49.60)과 표준편차(6.96)를 기준으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중간인 집단(56.55 - 42.55)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정적 영향(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인 집단(56.56이상)에서는 어머니의 의존적 애착점수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인 영향(31%)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하인 집단(42.54이하)에서는 어떤 변인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표 3).

4. 청소년의 성에 따른 가정의 SES,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요인의 영향력

청소년의 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표 3),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애정적 양육행동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육행동의 다른 하위변인들의 영향력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남자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의해 부적 영향을 받는 반면에 여자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의해 부적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19%이고 여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21%였다.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어머니의 애착유형에 따라 양육행동이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하며, 청소년의 성과 가정의 SES, 어머니의 애착요인, 양육행동들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청소년의 성에 따라 이들 변인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남녀 중학생 234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어머니의 애착유형은 안정-의존 애착(33.3%), 안정 애착(32.5%), 불안정-회피 애착(23.9%), 불안정-양가 애착(10.3%)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가 아닌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표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성, 가정의 SES,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애착의 영향력

독립 변인	자 아 존 중 감					
	남 아 (n=128)	여 아 (n=106)	전 체			
			상 (n=40)	중 (n=162)	하 (n=32)	전 체 (n=234)
	B (β)	B (β)	B(β)	B(β)	B(β)	B(β)
성						-1.80(-0.13*)
의존적 애착점수			-0.30(-0.36**)			
애정적 양육점수	0.48 (0.32***)	0.30 (0.26*)	0.13(0.16*)		0.40(0.30***)	
권위주의적 양육점수		-0.46 (-0.27**)	-0.28(-0.13*)			
과보호적 양육점수	-0.41 (-0.19*)					
R <sup>2</sup>	0.19	0.21	0.31	0.03	0.07	0.20
F값	9.99***	13.38***	5.41**	4.46*	2.39	11.31***
DW	1.74	1.98	1.96	1.89	1.84	1.79

\* p<.05 \*\*p<.01 \*\*\*p<.001

부모는 자신들이 사용해왔던 양육행동에 대해 자신을 잃게 되며, 성숙해가는 자녀를 지도하기 위하여 주위의 조언을 구하거나 양육태도의 변화를 꾀하려는 노력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자신의 아동기 경험에 기초한 애착유형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전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아동의 성,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과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이 유의하게 중요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즉,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성차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가정의 SES는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의 연구결과들이 가정의 물리적 조건보다는 심리적, 질적 특성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는 맥락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에 치중하거나 권위주의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애정적이면서 수용적인 자세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외에 청소년기에는 가정의 SES같은 외적 변인보다는 또래관계나 학업성적, 운동능력 등과 같은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제 또래수용도나 공격적 행동, 위축행동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3. 자아존중감의 상, 중, 하 세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중간인 집단(56.55 - 42.55)에서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인 집단(56.56이상)에서는 어머니의 의존적 애착점수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하인 집단(42.54이하)에서는 어떤 변인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이 상인 집단에서는 특히 어머니의 의존적 애착점수가 매우 큰 영향력(31%)을 갖는 것으로 밝혀져서, 어머니가 의존적인 애착을 높게 나타낼 경우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청소년의 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남자와 여자 모두 애정적 양육행동이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자는 과보호적 양육행동에 의해 부적 영향을 받는 반면에 여자는 권위주의적 양육행동에 의해 부적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에 무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라고 하겠다. 둘째, 어머니의 애착요인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의존적인 애착을 높게 형성할 경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형성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며, 영향력 있는 변인들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남자는 과보호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피하는 반면에 여자는 권위주의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 중 권위주의와 과보호 요인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 참 고 문 헌

1. 강민주·전경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 능력 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1), 197~210.
2. 강차연·장연집(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51~72.
3. 광금주·김근영(1996).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 개념 연구(I): 대학생의 우울 및 자기상과 관련하여. *인간발달연구*, 3(1), 1~14.

4. 김경연(1993). 어머니 관련변인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종단적 자료의 인과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1), 37~50.
5. 김문혜·강문희(1999). 아동의 자아존중감 관련변인의 인과모형분석. *아동학회지*, 20(4), 195~212.
6. 김순영(1987). 아동기에 있어서의 자아개념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7. 김하연·오경자·윤진(1991). 청소년의 자아개념. 또래집단에 동조 및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2), 199~212
8. 김희화·김경연(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47~60.
9.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4.
10. 박성연·임희수(2000). 2~3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변인들: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 및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1(1), 59~72.
11.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2. 박정선(1985). 모의 직업 및 지각된 양육태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3. 심응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심희옥(1997).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15. 손화희·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아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1(1), 58~71
16. 송인섭(1987).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양서원.
17. 어주경·정문자(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2), 21~20.
18. 오순환(1991).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윤현선(1984). 모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 이은경(1995).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21. 이진화, 전경숙(1995). 연령, 성별, 사회계층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225~245.
22. 임재련(1997). 청소년 자아개념의 발달적 특성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하현숙(1981).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 장미자·조복희(1999). 애착의 세대간 전이-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영아의 애착 유형. *아동학회지*, 20(1), 147~165.
25. 전현진·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70.
26. 조성연(1997).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45~57.
27.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8.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1998). 영아의 애착유형과 성인의 애착표상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 131~142.
29. Anderson, M., Hughes, H.M.(1989). Parenting attitudes and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0, 463~465.
30. Benoit, D., Parker, K.C.H.(1994). Stability and transmission of attachment across three generations. *Child Development*, 65, 1444~1456.
31. Cohn, D.A., Cowan, P.A., Cowan, C.P., Pearson, J.(1992). Mothers' and fathers' working models of childhood attachment relationships, parenting styles, and child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417~432.



32. Collins, N.L., Read, S.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33.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francisco: W. H. Freeman.
34. Crowell, J.A., Feldman, S.S.(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al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35. Demo, D.H., Savin-Williams, RC(1983). Early adolescent self-esteem as a function of social class: rosenberg and pearlman revisit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8, 763~774.
36. Dusek, J.B., Flaherty, J.F.(1981). The development of the self-concept during the adolescent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6(4).
37. Edwards, W.J.(1996) a measurement of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a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sample: what are the implications? *Adolescence*, 31(2) 973~989.
38. Eiden, R.K., Teti, D.M., Corns, K.M.(1995). Maternal working model of attachment, marital adjust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6, 1504~1518.
39. Felson, R.B., Zielinski, M.A.(1989). Children's self-esteem and parent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727~735.
40. Gecas, V., Schwalbe, M.(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1), 37~46.
41.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42. Kawash, G.F., Kerr, E.N., Clewes, J.L.(1985). Self-esteem in children as a function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 *The Journal of Psychology*, 119, 235~242.
43. Lerner, R.M. Hwltsch, D.F.(1983). Human Development : A life span perspective. Ny: Mcgraw-Hill.
44. Leung K., Lau, S.(1989) effects of self-concept and perceived disapproval of delinquent behavior in school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4), 345~359.
45. Litovsky, V.G., Dusek, J.B.(1985). Perceptions of child rearing and self concept development during the early adolescent yea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373~388.
46. Loeb, R.L., Horst, L., Horton, P.J.(1980). Family interaction patterns associated with self-esteem in preadolescent girls and boys. *Merrill-Palmer Quarterly*, 26, 205~217.
47. McCarthy, J.D., Hoge, K.R.(1982). Analysis of age effects in longitudinal studies of adolescent self-esteem.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72~379.
48. Moore, S., Laffin, M.T., Weis, K.L.(1996). The role of cultural norms in the self-esteem and drug use relationship. *Adolescence*, 31(123), 523~542.
49. Owens, T.J.(1994). Two dimensions of self-esteem: reciprocal effects of positive self-worth and self-deprecation on adolescent problem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391~407.
50. Protinsky, H., Farrier, S.(1980). Self-image change in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Adolescence*, 15(60), 887~893.
51. Protinsky, H., Farrier, S.(1980). Self-image change in pre-adolescents and adolescents. *Adolescence*, 15(60), 887~893.
52. Richards, M.H., Gitelson, I.B., Petersen, A.C., Hurtig, A.I.(1991). Adolescent personality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mothers and fathers. *Psychology of Woman Quarterly*, 15, 65~81.
53. Strand, P.S., Wahler, R.G.(1996). Predicting maladaptive parenting : role of maternal object rela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5(1), 43~51.